

광주신세계, 내일부터 추석 선물 판매

전남도와 손잡고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비중 확대

재활용·재사용 종이포장재 등 도입 환경보호 앞장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은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8월 개점 초기부터 ‘현지 바이어’ 제도를 통해 신선식품 대부분을 지역제품들로 선보였다.

특히 작년 추석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 비중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추석에도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우수 제품

기프트를 카탈로그 광고 전면에 배치했다.

신세계는 장성, 나주, 강진, 장흥, 함평, 완도 등 그 지역의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엄선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등 농가소득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진, 장흥, 해남의 우수 한우 제품과 영광에서 가공한 법성포 참굴비, 장흥 육포, 담양 한과, 강진과 장흥의 버섯 세트, 장성 장수 사과, 나주와 영암의 배 등이 대표적인 지역 상품이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와 손잡고 농수특산

물 판로개척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상생장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전남도 6차산업 장터 ‘비온드 팜’을 오픈했으며, 이번에는 전남도와 협업해 지역 우수특산물 세트 판매에도 나선다.

대표 세트로는 담양 안복자 팔각정 한과 세트, 여수 몹사랑 꽃차 선물세트, 피아골 전통장류 세트, 누리보듬 송하 세트 등이 있다.

ESG경영의 중요성 대두에 따른 친환경 제품과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종이 포장재도 선보인다.

그린스타 인증을 받은 우수산지의 사과와 배 세트를 시작으로 저탄소인증을 받은 사과 배 세트, GAP인증 제품으로 안심 농가에서 재배한 과일도 선보인다.

친환경·재활용 포장재와 냉매제를 확대 도입해 나무와 천 포장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박스로 상품을 포장해 환경보호에 나섰으며, 접어서 간편하게 보관하고 다양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보냉 가방도 도입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카탈로그 내 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할 경우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무료 배송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단 일부 상품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광주신세계 이동훈 대표는 “지난해 추석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의 지원을 위해 농수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 제품들을 카탈로그 광고에 전면 배치하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더욱 더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등을 도입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조사

인증 기업 46% “인증제 만족”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한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CCM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의 46.0%(23개)는 CCM 인증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임직원의 고객 중심 문화 개선’이 40.0%, ‘고객 중심 제품생산·공정관리를 통한 소비자 문제 예방 및 감소’가 24.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66.0%는 33개 기업은 ‘소비자 대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협력사의 인증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안’이 14.0%, ‘경영목표 달성’(12.0%)이 12.0% 순으로 인증 취득의 이유로 꼽혔다.

인증제 인지 이후 최초 인증까지는 평균 10.4개월이 소요되고, 개별 기업이 인증 취득·운영을 위해 배치한 인력은 평균 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86.0%에 해당하는 43개 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경과 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인증 취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증제 운영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88.4%로 가장 높았다.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69.2%는 ‘최소한 3년 이상 효력을 유지하는 등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20.5%는 ‘재인증 시 유효기간 연장 등 단계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오지현 기자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잇츠게임’ 13일 론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우수 게임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잇츠게임’을 오는 13일 오픈한다.

‘잇츠게임’은 국내 게임콘텐츠와 국내외 게임 관련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게임개발사와 해외 퍼블리셔 간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마련,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콘텐츠에 대한 상시 홍보와 비즈매칭이 가능해져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비즈니스 플랫폼 ‘잇츠게임’에서는 게임 유형, 제작 상황, 언어, 서비스 지역, 장르, 포맷 연령대 등의 콘텐츠 정보와 개발사, 퍼블리셔, 투자사의 기업 유형과 규모, 국가 등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비즈매칭 기능을 구현했다.

/우성진 기자

시설물관리→전문건설 업종 전환 후 전문건설협회 가입시 입회비 감면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박병철)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이하 시설물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내년 6월 30일 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물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협회 각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입회비를 감면할 방침이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2020년 9월 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해 이뤄진다.

지반조성·포장공사, 실내건축공

사업, 급속장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업 6개 업종 중 3개 업종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회비 감면혜택에 따라 전문업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업체는 사전 전환신청에 따른 실적 가산(50%)의 이익뿐만 아니라 입회비 부담완화 등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업체의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을 통해 기존 전문건설업과의 잦은 분쟁이 해소되고 추후 확대 될 유지보수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1일 본점에서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5호와 6호’ 선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희망 꿈나무’ 선정

어려운 환경속 재능 발휘 지역 청소년 격려

광주은행은 1일 본점에서 송중옥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5호와 6호에 대한 선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선정된 청소년을 초청, 후원금 전달과 함께 신발과 옷 등을 선물하며 격려했다.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는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광주은행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학업 및 예체능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준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진학까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호로 선정된 청소년은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무용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미래 인재이다. 6호로 선정된 청소년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하며 지역 영재로 선발되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지역의 미래 인재이다.

광주은행은 두 청소년을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로 선정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기간까지 각각 예술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후원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농협 광주본부, 내일 금요장터·8일 큰 장터 개장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강형근)는 최근 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보다 이른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본부 관계자 및 광주관내 15개 지역 농·축협 판매사업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하반기 직거래 개장 일정 협의, 추석명절 선물용 농특산물 상품 및 단가,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혹서기로 한 달여 동안 휴장했던 광주

광역시 농협 금요장터도 오는 3일부터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 후 지역농산물 애용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은 8일 추석맞이 큰 장터를 개장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서도 사전예약주문을 통해 명절맞이 직거래장터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구 우산동 농협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특별장터도 열린다.

/우성진 기자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중흥S-클래스

중흥그룹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 2020 건설업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문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주요 사업실적

안산 선부동 중흥S-클래스

울산 신동시 중흥S-클래스

서울 천호동 중흥S-클래스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광주 신동시 중흥S-클래스